

# 장애위험 영유아 조기발견과 개입을 위한 서비스 체계 구축 필요성과 과제

김영훈 대한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장

**아이들의** 발달 문제를 검사하기 위해 소아청소년과 방문은 매우 중요하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발달 지연에 대한 매우 중요한 선별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영유아발달검진 중 발달선별검사를 통해 발달 지연 등을 파악하더라도, 정작 부모가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지원을 해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영유아는 뇌발달의 가소성이 큰 시기이며 발달 과정 중에 있으므로 조기에 개입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진단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출생 후 3년은 언어, 소근육운동, 대근육운동, 정서 및 인지 문제에 대한 개입이 아이들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의 창이므로 영유아 건강검진 후 정밀검사 및 치료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영유아건강검진의 활용과 함께 부모뿐 아니라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교사가 영유아와 일상적 일과를 지내며 관찰할 수 있는 선별도구의 개발과 활용은 장애위험 영유아 조기발견과 개입을 위한 서비스 체계 구축에 중요 과제이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또래보다 발달이 늦다고 여겨지는 아이가 반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한 방법을 알아야 한다.

이번 호의 주제는 현대 사회에서 교육 및 보육 분야에서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장애위험 영유아의 발달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에 대한 것이다. 장애위험 영유아(children at risk for disabilities)란 현재 장애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장애진단 가능성이 또래보다 높은 영유아를 의미하며, 경계성 영유아, 발달지연 가능 영유아를 포함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대면 접촉이 줄고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아이들의 발달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영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바깥놀이 위축으로 인한 신체발달 지연, 마스크 사용으로 인한 언어발달 지연, 과도한 실내 생활로 인한 정서적 문제와 사회성 발달 문제 등이 보고된 바 있다. 실제로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결과 통계를 보면,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해외 자료에 의하면, 유아기 아동의 7~25%가 문제행동을 보이고 이들 중 50%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장애위험 영유아들은 사회적 기술의 부족과 인지, 언어능력의 제

한으로 또래와의 놀이에서 주제와 규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또래로부터 배척되고 소외당하여 부정적인 또래 상호작용을 경험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조기 개입은 더욱 중요하다.

정부는 영유아건강검진에서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대상에 대해서는 정밀검사기관 명단 제공, 검사비 지원사업을 안내하며, 장애위험군영유아에게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정보 연계, 부모 및 관계 종사자에게 영유아 발달 관련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정책이 제대로 궤도에 오르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실제 장애위험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 등 가족의 양육 실태와 애로점을 파악하고 이들이 가진 지원에 대한 욕구를 분석하여 정책을 정교화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육아정책포럼 79호의 집중조명에 실린 원고는 지금까지 논의한 장애위험영유아 지원의 문제점들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제안하고 있다. 첫째, 장애위험 영유아는 18개월 이전 조기선별과 개입이 필요하다. 둘째, 가족 지원의 측면에서, 부모의 이해와 대응 지원을 위한 정보의 접근성이 제고되어야 하고, 부모 및 가족이 겪게 되는 변화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가족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현행 장애위험영유아를 위한 관련 기관과 교육기관, 의료체계가 연계되는 등 관련 서비스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이번 호에서 제안하고 있는 이러한 정책들이 하루빨리 반영되고 안정적으로 작동하여 적절한 조기 개입을 통해 장애위험 영유아의 삶과 가족들의 삶이 개선되고, 장애위험 아이들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의 창으로써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